

D-100일 영암 F1대회 운영법인 KAVO대표 정영조씨

광주 무등로타리클럽 쌀 100포대 기탁

“‘황제’ 슈마허 우승하면 F1대회도 대박”



“국제 수준 F1 드라이버 양성해야 국내 레이스 성장”

영암에서 열리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 포뮬러 원(F1) 코리아그랑프리가 16일로 꼭 100일을 남겨두고 있다.

대회 운영법인 KAVO 정영조 대표(49)는 “모터스포츠 관계자들이 한국에 F1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시작한 것이 1999년부터다. 이제 그 결실을 보게 된다고 생각하니 감격스럽다”고 D-100일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정 대표는 “개최지를 전남으로 정하고 최종 유치 계약을 맺은 2006년 이후 정말 숨 가쁜 시간을 보내왔다. 이 자리 빙어 버니 애틀레스톤 F1 매니지먼트 회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07년 착공한 경주장을 현재

82%의 공정률을 마쳤다. 이달에 트랙 포장공사가 끝나고 다음달 각종 안전시설을 마무리해 목표 대로 완공을 맞출 수 있다”며 “남은 100일간 F1 팬 계층을 넓히기 위한 각종 홍보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입장권 판매 현황에 대해서는 “3월 말부터 차례로 입장권을 오픈하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광주은행 등 전국 은행에서도 입장권을 살 수 있다”고 전하며 “전국 규모의 소비자 조사를 한 결과 9월부터 본격적인 구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마니아층과 외국 팬들, 기업과 동호회 단체 구매 수요 등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낙관했다.

정 대표는 “국내 레이스의 질적·양적 성장을 위해서는 국제 수준의 F1 드라이버가 필요하

다”면서도 “한국인 드라이버 양성을 단기적인 흥행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가까운 시기에 구체적인 진전 상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대회에서 누구 우승하길 바라느냐는 질문에는 ‘F1 황제’ 미하엘 슈마허(독일·메르세데스)를 꼽았다. 전성기를 지나 우승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가장 강력한 파워 브랜드를 가진 드라이버인 만큼 대회 흥행을 위해서는 슈마허가 우승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광주출신으로 조선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정 대표는 “한국대회가 고향에서 열리게 돼 기쁘다”며 “F1을 계기로 국내 모터스포츠가 질적인 도약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 고향분들은 물론 국내 팬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모터스포츠의 새로운 매력을 접할 기회를 얻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 무등로타리클럽(회장 윤문상)은 14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구청 광장에서 이·취임식 당시 화환 대신 받은 20kg짜리 백미 100포대를 북구청에 기탁했다. <북구청 제공>

김은희 후원회장 난치성 어린이 환자에 성금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4일 오전 조선대병원을 방문, 난치성 질환으로 투병중인 어린이환자 5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과 현찰증서 1000매를 김민우 병원장에게 전달했다. 특히 이날 성금은 광주전남지역본부 김은희 후원회장이 최근 회갑을 맞아 자녀들이 모아준 여행경비를 기탁한 것이다.

나눔실천 목사, 신장 이어 간 기증

고흥순복음독대교회 나요나씨

신장 기증 후 9년 만에 간 이식을 한 50대 목사가 있어 화제다.

주인공은 고흥군 과면연 연등리 순복음독대교회 나요나(51) 목사. 나 목사는 최근 조선대병원에서 생면부지의 환자에게 간의 일부를 나눠줬다.

나 목사의 생명 사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나 목사는 지난 2001년에도 타인에게 신장을 기증했으며, 이에 앞서 그의 아내도 1999년에 신장을 기증했다. 이후 나 목사는 지난 2005년 간 기증 의사를 밝혔으나 지방간으로 불가 판정



을 받자, 식이조절과 운동을 통해 몸관리를 한 뒤 지난해 조선대병원에 기증 의사를 밝혀 이번에 기증했다. 특히 두 딸을 둔 나 목사는 아들(4)을 2년 전 입양해 키우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배우는 고통은 잠깐, 못 배운 한은 평생”

77세에 광주대신고 졸업 백채숙 할머니

“배우는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한은 평생입니다.”

최근 학력 인정학교인 광주대신고등학교를 졸업한 백채숙(77) 할머니는 “이제는 대학에 진학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를 공부하고 싶다”며 활짝 웃었다.

백 할머니는 지난 2007년 독학으로 중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한 뒤 같은 해 ‘2년 6학기제’인 대신고에 진학, 지난달 말 전학년 개근으로 졸업했다.

백 할머니는 고교 진학 당시 건강을 염려한 주변의 민류에도 불구하고 “배



분야를 전공할 계획이다.

백 할머니는 “정성을 다해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면서 “서로 격려하며 고락을 함께

한 급우들에게도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백 할머니는 자식농사도 잘 지었다. 5남1녀 모두 명문대학을 졸업해 대기업 입원, 공무원, 교육자로 근무 중이다. 손자·손녀도 12명이나 되는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박종연 광주대신고 교장은 “백 할머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장 먼저 등교하는 등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보냈다”며 “전학년 개근상, 선행상, 모범상, 봉사상 등 다양한 수상경력은 물론 서예, 사물놀이, 한문반 등 특기적성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모범생”이라고 말했다.

/박진기자 lucky@kwangju.co.kr

“어르신들 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

보해노조, 장성 경로당에 선풍기 40대 기증



보해양조 노조가 총회 33주년을 기념해 모든 성금으로 선풍기를 구입, 장성군내 경로당에 기증했다.

보해양조 정종태 전무와 황보옥 노조 위원장이 지난 13일 장성군청 군수실에서 김양수 장성군수에게 선풍기 40대(2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사진)

노조는 종회 33년을 축하하는 화환 대신 기금을 받아 선풍기를 구입했다.

보해양조 노조는 지난 2007년 장성군내 불우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35포(700kg)를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08년, 2009년에도 각각 장성군내 경로당에 선풍기 40여대를 전달한 바 있

다.

황보옥 노조위원장은 “일회용 화환을 받는 것보다 노인들을 위해 뜻깊은 일을 하자는 데 노조원들이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동부서 신명섭·정익진·강진수 ‘으뜸경찰’



광주동부경찰(서장 양성진)은 14일 6월 중 업무 성과가 뛰어난 직원 3명을 으뜸경찰관으로 선정, 표창하고 격려했다.

상반기 읍주운전 단속 및 예방 활동에 기여한 교통안전계 신명섭 경위와

간간미수 피의자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등 민생지안 확립에 기여한 형사과 정익진 경사, 양성진 서장, 강진수 경사 등이었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인사

◆국토해양부

◆고위공무원 채용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원 김삼열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정현택 ◇과장급 전보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과장 임근열 ▲부산지방항공청 공항시설국장 전형필

▲국무총리실 파견 장순재 ▲목포지방해양환경청장 정창원

내방

▲강계두(광주시 경제부시장)씨 ▲장병완(광주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민주당 후보)씨

장태기 광양부시장 목포대서 박사학위

장태기 광양부시장이 다음달 목포대학교 대학원에서 ‘전라남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산업 정책 방안 연구’로 도시 및 지역개발 박사학위를 받는다.

그는 논문에서 주5일제 도입과 함께 여가 시간이 늘어나 레저스포츠 활성화로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고 있어 따뜻한 겨울날씨, 전례의 자연환경과 풍부한 먹거리와 물거리가 많은 전남의 스포츠관광산업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장 부시장은 전남의 스포츠시설, 스포츠 이벤트, 동계전지훈련, 골프산업 실태, 해양스포츠 지원 등 내부환경을 경쟁관계에 있는 경남, 강원, 제주의 관광자원 및 스포츠 산업자원의 외부환경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레포츠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동부취재본부=박진기자 pyj4079@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628 FAX (062) 222-4938, 222-4918

화촉

▲조용진(광주시 기획관리실장)·김승매씨 차남 상우군 임삼주·홍덕희씨 장녀 영신양=16일(금) 오후 7시 30분 서울 해암빌딩 17층 스카이 라운지.

종친회

▲가락김씨 광산구 종친회(회장 김명호) 월례회=16일(금) 오전 11시 가락 종친회관 2층. 062-944-1951.

▲경주정씨 목포지구 종친회(회장 정학균) 야유회=17일(토) 오전 8시30분 유달경기장 출발, 새만금간 척자·내소사·변산반도 등. 011-613-3388.

▲창원황씨 광주·전남종친회(회장 황양선) 제20차 운영위원회 및 선

조 기적록 연찬회=17일(토)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농성동 신정 연회장. 062-365-0900.

알림

▲광주자원봉사센터 어르신지원봉사단 모집=30일(금)까지 모집, 60세 이상. 예절교양, 학습도우미, 교통질서지도, 무료급식봉사, 공원 및 놀이터 환경미화, 문화유적해설, 숲 지킴이, 복지관 프로그램 지원, 기초질서캠페인 자원봉사활동. 문의는 국번없이 1365.

▲국제엔에스티 목포 시내 역사문화 팀방=17일(토) 목포 권역 탐방. 국제엔에스티 광주지부와 한국인권교육원 공동참여. 019-646-4473.

▲광주생명의 전화 무료 상담=24시 전화 상담 전국 통합 1588-9191, 광주 062-223-9191. 면접 상

유로우신 분), 약기 후원 받음, 062-431-8025, 010-9676-0828.

▲한국웃음요가연구소(소장 김영식 박사) 국제 웃음요가 지도자 양성 수시 모집=웃음치료, 웃음요가 무료 상담, www.hahayoga.co.kr 062-381-8254, 011-9374-7482.

▲늘 기쁜 지역 아동센터 공부방 무료 수강생 모집=초등학생, 방과

후 숙제 및 학습 지도. 062-511-6771.

▲전통문화예술단 굴림 무진농악 단=은빛국악단 회원 및 강습생 모집

=풀물반(수·오후 3시), 난타반(복·오후 3시), 장구초보반(화·오후 7시 30분), 중급반(월·저녁 7시 30분). 062-523-0474, 010-2658-0876.

▲북구 한울복지재단 가곡 노래 교실 ‘참고운소리단’ 회원 모집=55 세 이상 가곡을 사랑하는 남녀. 010-9886-9775.

▲장애인 체육 동호인 모집=광

주시장애인체육회 방문 및 홈페이지(www.gisad.or.kr), 전화 상담 후 신청. 062-384-5544.

▲돌이패 ‘신명’ 단원 모집=연극·탈춤·풀그룹·소리 등에 관심 있는 젊은 남녀. 062-527-7295.

▲학순 효시랑 노인복지센터 무료 방문 신청자 모집=중풍이나 치매 등의 병으로 고통받는 환순 거주 노인들의 무료 방문 복지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문의 061-373-8865.

▲나상인(전 광주학생독립운동기

